

건강 칼럼

영유아 건강 위협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서서히 추워지기 시작하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가 유행하는데, 특히 11~1월 사이 절정을 이룬다.

11월 현재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이 유행하고 있어,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

지난 5일 질병관리본부는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신고 건수가 10월 첫째 주부터 4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호흡기 감염병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입원환자 신고건수는 올해 43주(10.21~27) 301건으로 전주(42주 10.14~20) 209건 대비 144%로 증가했으며, 최근 4주간(9.30~10.27) 신고 사례의 연령별 분포는 1~6세가 61.5%, 0세 이하가 33.1% 순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94.6%가 6세 이하의 영유아였다.

사람만 감염되는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는 침, 기침 등 비말에 오염된 물건과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 등으



신 미 용

순천현대 소아청소년과

로 감염되는데, 처음에는 콧물, 발열과 기침으로 시작해 점점 기침이 심해지고 쌉쌉거리며 힘들게 호흡하는 증상을 보인다.

더 심해지면 호흡이 가빠지는 호흡 곤란과 얼굴이 창백해지는 청색증이 발생한다. 호흡이 힘들면 잘 못자는 증상을 보인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성인이나 큰 아이는 가벼운 상기도 감염 양상을 보이지만, 3세 미만의 영아나 어린 소아는 세기관지염 또는 폐렴이 발생한다.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는 영아 및 어린 소아에서 나타나는 세기관지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생후 2~7개월에 가장 빈도가 높다.

미숙아로 출생한 아이나 선천성 심장기형, 만성폐질환이 있는 경우 심하게 앓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3개월 이하 영아, 특히 조산아에서는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무호흡 발작으로 인해 갑

자기 청색증이 발생할 수 있고, 급격히 호흡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기침이 심하고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에서는 먹을 때 사래가 걸리기 쉬우므로 수유와 음식 섭취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요 증상이 나타나기 수일 전부터 감염된 환자로부터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으며, 보통 약 1주일간 바이러스가 배출된다. 감염 환자의 약 10%는 2주 이상 바이러스를 배출하기도 한다.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유행 시기마다 영아의 절반 정도가 초감염을 경험하게 되며, 2세까지는 거의 모든 소아가 한 번 이상 감염된다. 재감염 시에는 대개 초감염보다 가벼운 경과를 보인다. 현재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인정받고 허가된 치료제는 없다. 증상이 심한 경우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인해 잘 먹지 못하여 탈

수가 동반된 경우가 흔하므로 적절한 수액 치료도 중요하다. 중이염 등의 2차 세균감염 소견이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생제 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직 예방을 위한 백신도 없다. 수동면역 주사가 예방적으로 쓰일 수는 있으나, 만성 폐 질환이나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영유아, 조산아 등의 고위험 아이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사하고 건강한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며, 성인이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아이에게 옮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바이러스 유행 시기에 아이에게 비수한 증상이 나타나면 평소 다니던 병원을 방문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증상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의한 세기관지염은 기침과 천명(쌉쌉 거리는 숨소리), 호흡곤란 등 천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천식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에서 천명을 동반한 세기관지염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천식을 의심해야 하고, 특히 아토피피부염과 천식 가족력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천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두 질환을 구분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독자재언

무단횡단, 아직도 하고 계시나요?

며칠 전 늦은 밤 열한시경 인천 민수동 민수역 인근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이 승용차와 버스에 의해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해보니 보행자가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위 민수동 교통사고와 같은 무단횡단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는 '15년 105명, '16년 107명, '17년 11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전주 완산구 관내에서 발생한 19건의 보행자 교통사고 중 무단횡단이 주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13건에 달한다.

이처럼 무단횡단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보행자의 특성에 있다.

특히 시간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보행하는 사람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차가 알아서 피해 가겠지’, ‘문전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기 쉽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소중한 본인의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사망하는 가족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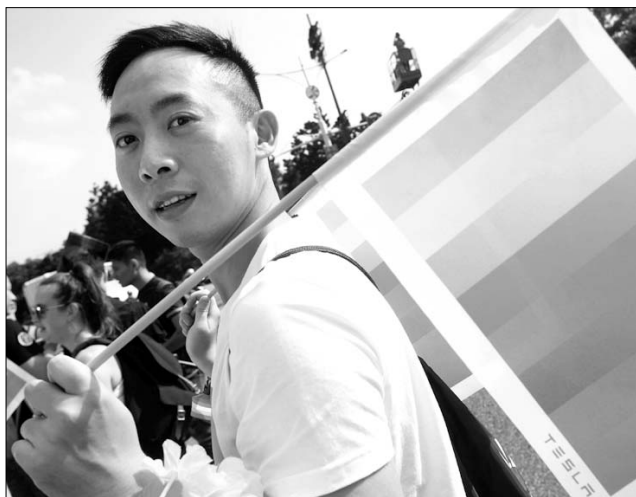
일분일초를 아끼기 위해 오로지 전방만 주시한 채 횡단보도를 뛰어가지 말고, 일부 늦더라도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보행을 하는 것만이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체헌 원안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대만 ‘동성결혼’ 24일 국민투표



지난달 2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타이완 LGBT 퍼레이드’에서 참가자가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다. 대만에서는 오는 24일 동성결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치러진다.

사설

지금은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할 때

지금은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이같은 말은 지난날에도 여러 번 반복했던 말이다. 그래도 지금은 주문의 성격이 다르다. 과거와 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타지 역의 흔들기가 아주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보수 언론들을 통한 언론 플레이도 모자라 미국 언론까지 동원해 막장 드라마를 보였던 수도권의 약을 삼기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전주 제3 금융도시 지정에 대해 부산상공회의소가 격렬하게 반발했던 것도 삼기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당부하거니와 지금 전북도의 실력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전북도는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발전 방향을 선도해야 한다. 전북도는 저번에 화이부동의 정신을 말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풀이켜 생각해봐도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바로 그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 지역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도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북도는 도민의 분노에 고무

되어야 한다. 다들 목도하는데 우리 지역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다른 고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뒤쳐진 채로 있다. 고장의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는 공조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전북도는 제 몫을 챙기는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를 상대로 전북도의 몫을 온전히 챙겨야 된다. 전북도 스스로 제 몫 찾기를 강조해 말했었거니와 다른 광역 시도와 그것보다 억척스러워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도민들은 지역 발전을 열망하고 있다.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더러 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전 방향을 선도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전북도는 지역발전 열망의 열기를 계속 고조시켜야 한다. 그리고 더욱 뜨겁게 증폭시켜야 한다. 도내 중요한 사업들이 더딘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발 속도도 올려야겠다. 도민들의 주문은 한결 같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번엔 7조원 예산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겠다.

기업 생존률 지금은 어떠한가

기업 생존률이 어떤지 궁금하다. 저조한 보고가 수년 간 계속됐는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보나마나 그 대답이 뻔해도 그렇다.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짐작이지만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이 살아나야 한다는 안타까운 바람 때문이다. 군산의 조선소가 그 생명이 다했다지만 현대 중공업 쪽의 최근 주주 물량이 늘어난 것을 계기로 다시 살아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 때가 되면 어떻게든 재가동시켰다고 말한 것이 다시 생각나는 것이다.

도내 기업들의 생존률 통계 보고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가 있다. 전북도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를 열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소기업들 쪽에서 밝은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요즘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언제고 그랬거니와 돈이 돌지 않는 전북 경제는 정체된 상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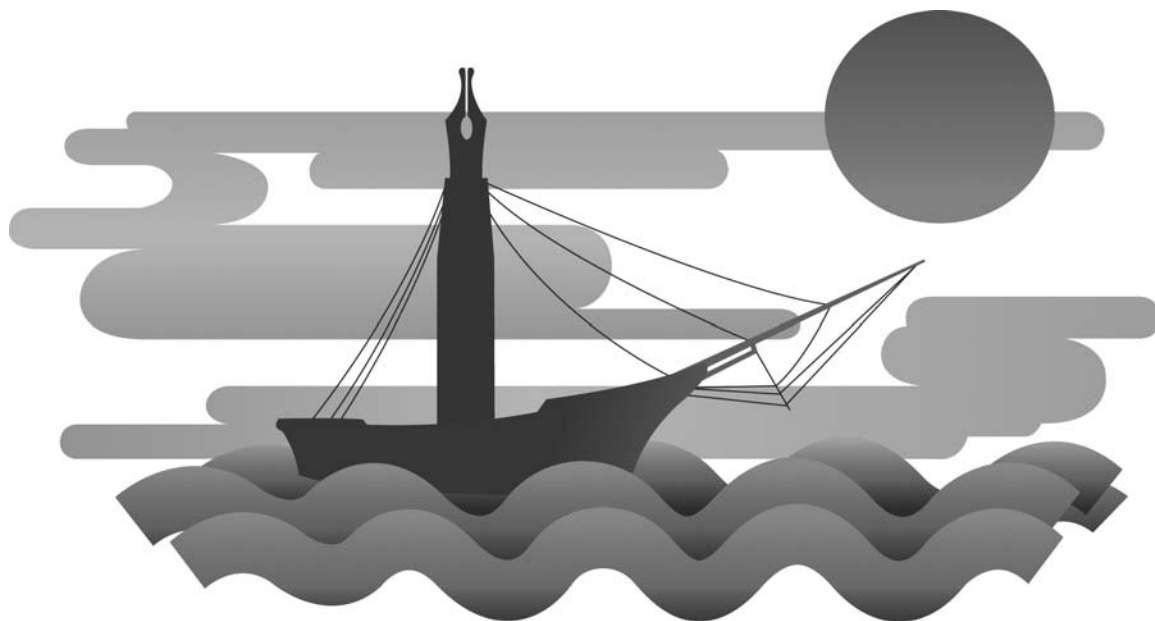
다. 평균잡아 도내 기업들 10개 중 7개가 5년내에 문을 닫고 있다니 난감하다. 오래전부터 기업인들은 체감경기를 안 좋게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다면 문제이다. 지금 전북도더러 중소기업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소기업들이 우리 지역 경제의 한몫을 계속 담당해 줘야 하는 까닭이다. 지역 경제를 받쳐주는데 그 역할이 컸다는 이야기이다. 전북도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애써 일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북도는 기업 생존률 최하위 기록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다.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이 제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까 생각하라는 것이다. 예전처럼 행정적 인센티브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생존률 전국 최하위라는 보고가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는 곤란하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전북도는 기업 생존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